

해 외 연 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동아시아도서관

김 현 미
(농학도서관)

< 목 차 >

I. 들어가며	
II.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UBC) 도서관	
1. UBC 개요	
2. UBC 도서관	
1) 열람 및 대출	
2) 수서 및 정리	
3) 이용자 교육	III.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도서관
4) 참고 봉사	IV.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University of Simon Fraser)도서관
5) 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	V. 캐나다의 도서관 활동
6) 기타 서비스	VI. 기타 연수 활동
3. UBC 아시아 도서관	VII. 나오며
1) 아시아 도서관 개요	
2) 아시아 도서관 장서 현황	
3) 아시아 도서관 자료의 구입 및 정리	
가) 한국학 자료의 현황	
나) 한국학 자료의 구입	
다) 한국학 자료의 정리	

I. 들어가며

필자는 2008년 3월부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내 아시아 도서관(Asian Library)에서 6개월간의 해외연수의 기회를 가졌다. 연수 기간 중에 필자는 한국학 관련 자료의 정리 업무(Cataloging)를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사이먼 프레이즈대학 도서

관과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 도서관을 견학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연수 기간 동안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도서관 회의(CEAL¹⁾)에도 참석하였다.

본 연수 보고서는 UBC 여러 도서관 및 워싱턴 대학도서관, 사이먼 프레이즈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참고 서비스하는 형태는 어떠한가, 어떤 발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과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UBC)도서관

1.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개요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은 1908년에 설립되었으며,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와 캘로나에 위치한 연구 대학이다. UBC는 지난 몇 년간 세계 종합 대학 순위에서 20-30위권을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명문대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제 북미를 뛰어넘어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UBC의 이런 발전에는 주정부의 역할이 크다. UBC에 쏟는 정부의 연구 지원금만 해도 매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이 된다. UBC 학과 중 최고로 손꼽히는 경영학과는 UBC의 대표 학부라고 하며, 자연대학은 노벨 수상자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UBC 대학의 총장은 국제법 교수인 스테판 투페(Stephen J. Toope)이다.

UBC 대학의 교수 및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캠퍼스	교수	직원	학생	학생		
				학부	대학원	유학생
Vancouver	4,500	8,000	53,374	39,860	7,851	* 전체 학생 수의 약 12%
Okanagan						
Robson Square						
Great Northern Way						
서울대학교	교수 : 2,100		직원 : 1,009	학생 : 30,120		

1) Council of East Asian Libraries 2008 Annual Meeting, March 31, 2008 ~ April 5, 2008, Hyatt Regency Atlanta Hotel & Emory University

2.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도서관

UBC 도서관(<http://www.library.ubc.ca>)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연구 중심의 학술 도서관이며, 중앙 도서관 격인 Walter C. Koerner Library를 비롯하여 각 주요 단과 대학별 도서관 등 약 20개의 주제별 도서관²⁾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도서관은 각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각각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동화 시스템 및 전자 도서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

주제별 도서관의 하나인 Irving K. Barber Learning Centre는 이용자들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최상의 학습센터이다. K. Barber 박사의 2천만 달러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의 1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기존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2008년 개관한 이 센터는 10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그룹 세미나실과 여러 명의 학생이 작업할 수 있는 공동연구 공간과, 독립 작업을 위한 이용자 독립 공간이 있으며, 어느 장소에서든 편안하게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다.

2008년 4월 Learning Center의 개막식에서 86세의 Barber 박사가 한 연설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난다. 그는 “내가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고, 내가 그 일을 하니 기뻐고, 미래가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³⁾”라고 말했다. 기부자의 도서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담긴 연설이라 감동 받았었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한 기부보다 큰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들의 기부 문화가 부러웠다.

UBC Library Development Office는 UBC 도서관의 주요 기구로서, 도서관을 지원하는 부서이다. 2007년부터 LibQUAL⁴⁾과 User Survey를 실행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장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복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한 후 e-book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7년에 두 개의 분관(MacMillan and Mathematics libraries)을 닫고, 또한 도서 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Walter C. Koerner Library, Okanagan Library, Asian Library, David Lam Library, Education Library, Law Library, Hamber Library, Robson Square Library, St. Pauls Hospital Library, Woodward Biomedical Library, Music Library, Irving K. Barber Learning Centre, Xwi7xwa(pronounced whei-wha), Life Sciences Library, Champan Learning Centre, Art+Architecture+Planning, Data Services, Extension Librar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xtension Library, University Archives

3) “So I did it because I wanted to, and I am glad I did. I expect the future to prove me correct.”

4) 미국 도서관 협의회(ARL)와 Texas A&M 대학도서관이 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SERVQUAL 모델을 기초로 공동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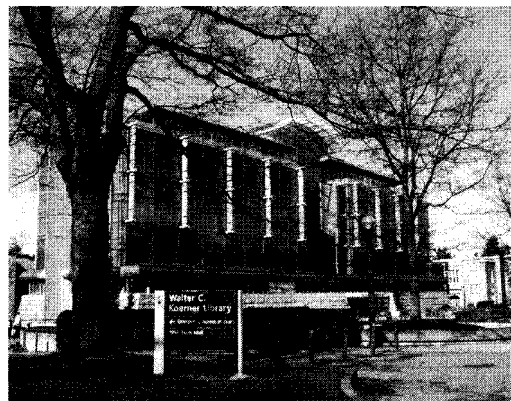
그리고 이 부서는 "Big Project"를 2008년에 사서들이 희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아 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하며, 아울러 현재 재학 중인 UBC 학부생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직원들의 의견과 이용자의 견해를 균형 있게 조절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도서관에서도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편 UBC 도서관은 도서관 평가위원회를 두어 예산을 책정할 때 "반드시 줄이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반드시 줄이지 말아야 하는 사안으로는 기관 리포지터리 Pilot, ASRS 유지비용, LibQUAL+, UBC Library & Scholarly Communication Workshop, Voyager upgrade to display, Asian scripts, E-resource subscription 등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자원을 평가하는 부서(Evaluation Internet Resources Department)가 있으며, 도서관 교육 지원 센터(Library Instruction Centre)에서는 연구 방법 이외에 작문 및 커뮤니케이션과 언어 기술에 대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 cIRcle⁵⁾은 UBC 커뮤니티가 생산한 자료를 위한 오픈액세스 기관 리포지터리이며, 다양한 디지털 포맷 및 콘텐츠 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 리포지터리의 주요 목표는 UBC의 지적인 연구물과 캠퍼스 내의 자료와 학습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UBC 대학도서관의 전체 장서는 540만권으로, 5만 6천 종의 연속간행물, 520만 종의 마이크로필름, 82만 종의 지도 및 시청각 자료, 약 26만권의 전자책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연구논문, 오디오테이프, 비디오 및 온라인데이터 베이스를 소장하고 있다. 이 중 특수 자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료는 직접 열람할 수 있거나 대출할 수 있는 개가식으로 되어 있다. 한편 UBC 도서관 전체 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인원수
Librarian	76
Management and Professional(M&P)	28
Support Staff(Assistant Librarian)	183
Subtotal	286
Student	31
FTE ⁶⁾ Total	320
Half Time Librarian	70
Sub Total	390



Walter C. Koerner Library 전경

5) UBC's Information Repository

6) Full Time Employee

1) 열람 및 대출

한 학기가 시작되면 각 도서관의 일별, 요일별 도서관 운영시간이 적힌 인쇄물이 배부된다. 도서관 열람 시간은 각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열람시간은 대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관인 경우 대개 일요일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구 분	월요일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학기 중	8:00am - 12pm	12:00am - 5:00pm	10:00am -10:00pm
방학 중	9:00am - 5:00pm	1:00pm - 5:00pm	12:00am -10:00pm

도서관 이용은 대학구성원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일반사람의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제도가 커뮤니티 회원제도이다. 커뮤니티 회원은 UBC의 구성원이 아닌, 밴쿠버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지역인들로서 일정한 연회비를 납부한 이용자를 가리킨다. 즉 1년이나 한 학기 단위로 일정한 연회비를 납부하면 커뮤니티 회원으로 등록되고, 대출을 비롯한 도서관의 전반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커뮤니티 회원제도이다.

흥미로운 것은 65세 이상의 연장자를 존중하는 제도이다. 65세 이상의 사람이 커뮤니티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보통 사람의 한 학기 연회비만 내면된다. 한편 서울대학 도서관의 경우 졸업생에게도 연회비를 받고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비해, UBC에서는 졸업생에게는 연회비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 책 수는 제한이 없으며, 필요한 만큼 빌릴 수 있다. 커뮤니티 회원에게는 2007년 9월부터 50책까지 빌려 주고 있다. 비도서인 경우 대출 기간은 3일이며, Extension Library의 경우는 1일 동안이다.

대출 기간은 교수인 경우 Academic Term을 적용하여 6개월 동안 자료를 빌릴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독점을 막기 위해 리콜제를 이용하고 있다. 리콜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경우 90일까지 가능하다. 각 도서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자료 대출기한은 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신분상 차별화 등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Books	Journal	Course Reserve	InterLibrary Loan	비도서
교수	6개월	·도서관내에서만 이용 가능 Math. Lib. : 1일 Law Lib. : 2일 Asian Lib. : 1주	2시간, 1일, 3일 UBC 교수와 학생에게만 대출	2주	3일
대학원생	8주				
학부생	2주				

지정도서(Reserving Books)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단기간 대출하고 있으며, 대출 기간은 2시간 또는 1일, 3일이다. 교수와 학생에게만 대출 가능하며, 직원이나 커뮤니티 회원에게는 대출되지 않는다.

리콜제(대출도서 기한 전 반납제)는 자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이미 대출중인 도서를 다른 이용자가 반납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대출기간의 1/2이 경과한 도서이다. 신청자는 통보 후 3일 이내 대출할 수 있다. 부재 도서인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이콘이 없는데,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대출대에 신청하면, 직원이 찾아서 3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대출해 준다. 3개월 동안 찾을 수 없는 책은 제적 도서로 처리한다.

단행본 이외에 DVD도 대출이 가능한데, DVD는 특수 케이스를 사용하여 대출 시 잠금 장치가 풀리게 되어 있다. 서울대도서관에서는 비도서(Videos, Film, DVD, CD-ROM 등)의 자료는 도서관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자료에 한해서 UBC의 도서관은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출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다.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5,000개가 넘는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필름 등이 있다.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Documentary Delivery)는 도서관에 없는 자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UBC에서는 CISTI(Canadian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와 CRS(The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을 통해서 상호대차를 해결하며, UBC 학생, 교수,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즉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도서관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CISTI는 논문의 경우 2-3일, 단행본일 경우 5-7일 동안 빌릴 수 있다.

한편 UBC 대학 도서관의 대출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Dual Monitor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이용자의 대출 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고, 또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UBC의 연체료는, 서울대학 도서관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정도의 금액이다. 학생들에게 높은 연체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얘기했다. 구체적인 연체료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기간	책수	금액
단행본	1일	1책	\$1.00
지정도서	1시간	1책	\$1.00
ILL	1일	1건	\$5.00
Laptop computer			\$20.00

한편 책을 분실할 경우 도서 비 이외에 Processing fee 1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50달러 이상의 연체료나 벌금을 물 경우 도서관 이용이 정지된다.

반납은 캠퍼스 내에 산재해 있는 어느 도서관 건물에서나 가능하므로 매우 효율적이다. 자료의 반납은 교내 타도서관에서도 가능하나, 단 우편으로 반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상호대차 자료 및 지정도서는 지정된 도서관의 사무실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UBC 통계에 의하면 UBC 도서관은 매년 3만 명 이상이 도서관을 방문했으며, 또한 UBC 도서관의 홈페이지는 2,100만 건 이상의 웹 페이지를 방문한 통계 수치를 보였다.

2) 수서 및 정리

가) 수서

UBC 도서관에서 수서는 장서관을 담당하는 주제 전문가가 담당하며, 교수와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목록을 신청받기도 하고, 사서가 직접 수서 대상 도서를 선정하기도 한다. 또한 수서 담당 사서는 도서와 함께 납품되는 목록 레코드를 수정 점검하기도 한다. 현재 UBC 대학 도서관의 수서 담당자는 6명이다.

저널의 경우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구입하는 것에 비해, UBC 대학 도서관은 교수, 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학과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단,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서의 방법으로는 Standing Order⁷⁾, Firm Order⁸⁾, Approval Order⁹⁾로 구분할 수 있는데, UBC 대학 도서관은 영어책을 거의 Approval Order로 하고, 동양서의 경우 중국서만 Approval Order로 하고, 일본서와 한국서는 Standing Order로 한다.

UBC 대학 도서관은 컨소시엄을 통하여 전자 저널(e-Resources)을 구입하는데, CRKN(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국가 공동협회이며, 지역별로는 Pacific University Libraries(COPPUL)와 BC Electronic Library Network(BC ELN)을 통해서 구입한다. 단행본 자료와 e-Resources의 구입 비율로는 e-book이 2003/2004년에 22,082책인 것에 비해, 2006/2007년에는 40,600책으로 84%의 증가율을 보였다.

나) 정리

UBC 도서관은 목록 시스템으로는 UNIX System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Voyager System

- 7) 계속 주문이라고 하며, 믿을 수 있는 출판사, 시리즈의 명성이 알려진 것들에 대해 사용될 수 있는 주문 방법이며, 주문과 관련된 서류 업무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입수되는 자료가 계속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에 입수자료의 평가가 필요한데, 이 평가는 선택자의 책임이 따르지만 수서부서의 책임은 필요하지 않다. 도서관의 예산이 풍부할 때 가능하다.
- 8) 확정주문이라고 하며, 수서업무 중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를 주문할 때 서적상에게 일정한 가격한도 내에서 구매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며,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 9) profile(가격, 주제, 언어 등)에 대한 조건에 맞는 자료를 전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시리즈가 적절하지 않고 내용이 도서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profile을 통해)에는 반품이 가능하다.

을 사용하고 있다. WorldCat을 통해 검색하며, OCLC 데이터를 이용하여 Copy Cataloging을 한다. RLIN¹⁰⁾을 사용하다가 2007년 OCLC이 RLIN이 통합되어 OCLC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OCLC 띄어쓰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2008년 CEAL의 회의 결과 타이틀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기하기로 하고 결정함에 따라, 그 원칙을 따르고 있다.

UBC 대학 도서관에서는 목록작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으며, 그 명칭은 LPC(Library Processing Cataloging)이다. 여기에서 각 분관의 도서를 목록화(cataloging)하여 분관으로 보낸다. 목록 담당자는 15명이다. 이중 중국서, 일본서, 한국어서, 인도 담당 목록 자는 각각 1명씩이며, 수서도 함께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도움으로 장비 작업 및 부수적인 일을 하고 있다.

UBC 도서관에서는 LC(Library Congress) Classification을 사용하고 있으며, 의학도서는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Classification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UBC 도서관에서는 LC Subject Heading을 만들고 있으며, Authority(전거)는 문학작품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있다. 85% 정도 LC에 의존하며, 그 외의 자료는 Copy Cataloging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경우는 Canada National Cataloging, Harvard University Library, Columbia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Washington의 Cataloging을 주로 참조한다.

영어 책은 거의 OCLC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Copy Cataloging 하거나, 부분적으로 아웃소싱을 한다. 중국어, 일어는 일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있다. 우선 정리하고 있는 도서를 Rush Book이라고 하며,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된 자료가 영어책일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리하여 알려 주고 있다. 동양서의 경우, 보통 때는 구입 신청해서 서가에 꽂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데, Rush book인 경우 3주 이내에 해결해 주고 있다.

3) 이용자 교육

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씩 시행되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교육받는 것이 가능하다. UBC 도서관은 보통 교육명과 교육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상세 안내문을 각 학과에 보낸다. 또한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교육 일정을 도서관에 비치하기도 한다.

또한 이용자 교육은 학생의 정규 수업의 하나로 정해져 실제로 모든 학생들이 서지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기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기적인 학기과제 연구지도 프로그램, 스트레스 처리, 건강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가 진단 정보센터, 글쓰기를 도와주는 워크숍 등이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특정한 코스를 위한 교육 이외에 예약이 필요 없

10) RLIN은 150여개의 미국 연구중심대학 도서관, 박물관 및 각종 연구소 회원을 중심으로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비 영리기관이다.

는¹¹⁾워크숍이 항상 가능하며, Education Library에서는 communication and language skill을 담당하기도 한다.

교육 내용은 도서관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 도서관 목록 자료 검색 안내, 자료 소장 위치, DB 종류와 특성, 다양한 e-Resources(e-Journal, e-Book)의 교내, 교외 이용 방법, 도서관이나 웹소스를 이용한 학위논문 검색 방법 소개, RefWorks 교육 등이다.

4) 참고서비스

UBC 도서관은 Directional Transaction¹²⁾과 Reference Transaction¹³⁾ 두 종류의 참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참고서비스는 주로 주제사서(Subject Librarian)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장서개발, 이용자 교육 등의 고유 업무와 참고실 스케줄에 따라 주제별로 할당된 요일의 참고 업무를 담당하며, 아울러 전 주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제 사서는 현재 19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서들 대개가 주제 분야와 관련된 두 개 정도의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인접 학문 분야의 주제에 대해서도 레퍼런스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참고서비스 이외에도,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개인 블로그나 웹을 통해 자료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 도서관의 일본사서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전문 주제와 관련 되는 모든 자료를 링크 할 수 있도록 웹에 올려놓고 있다.¹⁴⁾ 또한 헤이와도서관(Xwi7xwa)¹⁵⁾의 주제사서인 김 로슨(Kim Lawson)은 인류학과 태평양 아시아학(Pacific Asian Studies)의 두 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문헌정보학 아카이브를 전공하였는데, 그녀 역시 온라인 참고봉사 도구(On-line Reference tool)를 웹에 올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¹⁶⁾

한편 UBC 도서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시간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참고서비스를 하고 있다. 오프라인 방식은 면대면 및 전화를 이용한 방법이며, 온라인 방식은 전자우편이나 게시판 또는 웹폼을 활용한 참고서비스이다.

UBC 도서관 참고서비스의 특징적인 모습은 실시간 참고서비스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가 직접 대화하면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실제과정을 도움 받는 방식이다. 즉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이용자의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게 하며, 24시간 내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¹⁷⁾.

11) drop-in workshop

12) 단순한 질문에 답하는 레퍼런스 서비스

13) 정보원, 추천도서, 주제 분야에 관한 연구 지원을 하는 레퍼런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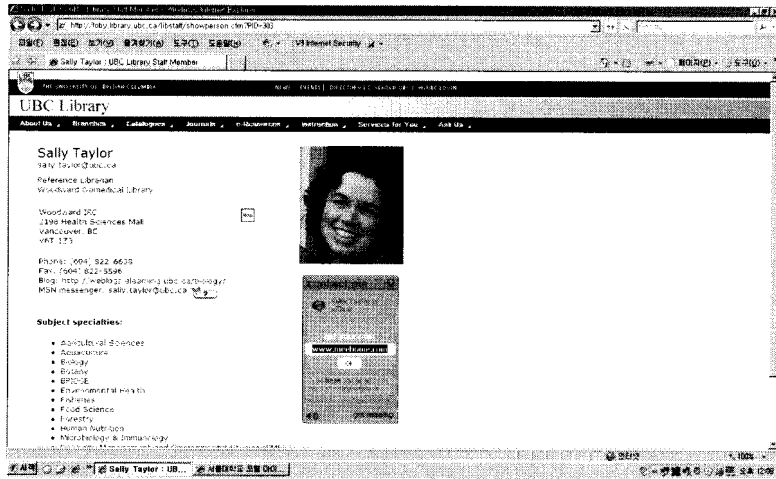
14) <http://weblogs.elearning.ubc.ca/jlib>

15) (pronounced whei-wha) First Nations Library,

16) Information Resources : Online Reference Tools - Dictionaries, and More, 사이트 :

<http://toby.library.UBC.ca/resources/reflist.cfm>

17) Library's online tutorial & collaborative browsing



실시간 참고서비스 화면.

<http://toby.library.ubc.ca/libstaff/showperson.cfm?pid=309>

이러한 실시간 서비스는 기존의 다른 온오프라인 방식의 참고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온라인 참고서비스의 단점은 조사형 질문이나 연구형 질문과 같은 깊이 있는 질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의 처리 역시 쉽지 않다.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은 자료검색의 구체적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실시간 서비스는 이용자와 사서의 대화를 나누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검색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이고 보다 전문적인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화와 면대면의 직접적인 오프라인 상의 서비스와 온라인상의 서비스의 장점을 통합한 서비스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UBC의 참고서비스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위한 서비스를 구분해서 하고 있다. 학부생들에게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사용방법, 전자 저널 사용방법, 도서관 이용법을 서비스 하는 반면,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위해서는 문헌 비평을 위해 올바른 정보원을 찾는 방법 이외 최근의 연구 동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논문 작성방법, 인용 index 만드는 방법, 서지 작성하는 방법 등이다.

5) 보존과 디지털 아카이빙

가) 희귀 도서와 특별 컬렉션

희귀 도서와 특별 컬렉션은 도서, 장서표(Book plate), Chung Collection, 디지털 컬렉션,

필사본, 지도, 사진 등을 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트라빈스키(H. Colin Slim Stravinsky) 장서와 윌라스 비 청과 매들린 장서(Wallace B. Chung and Madeline H. Chung Collection)를 비롯하여 25,000여종의 희귀도서와 B. C의 역사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UBC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생산한 여러 종류의 자료를 모두 스캔하여 웹을 통해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흥미 있는 소장 자료는 캐나다 역사, 캐나다인의 문학, 초기 아동문학이었다. 이 자료들을 이용할 때는 CCTV가 설치된 출입구를 통과해야 되며, 소지품을 입구에 있는 사물함에 넣어야 하고, 연필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자료보존과 보안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별 컬렉션인 Chung Collection Room은 중국인인 Wallace B. Chung이 UBC에 기증하여 설치된 전시장이었다. 이 컬렉션에는 희귀도서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각종 민속자료를 전시해 놓았다. 흥미로운 점은 박물관이 아닌 도서관에서 이런 전시장을 갖는다는 것이 재미있었고, 중국인들이 중국을 알리려는 노력은 높이 살만 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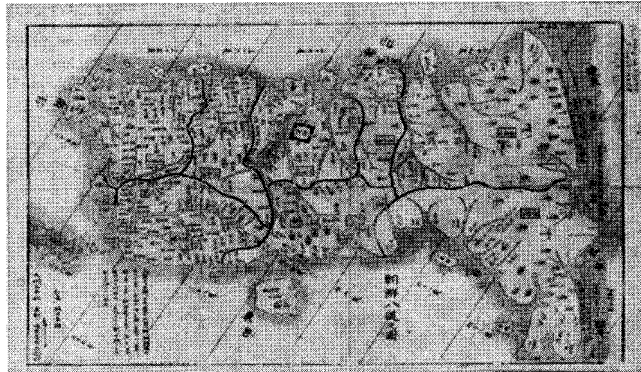
나) 디지털 아카이빙

UBC 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두 종류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역사 디지털 장서이고, 또 하나는 교수 및 학생 연구 프로젝트를 디지털화한 자료이다. 사진, 서신, 신문, 일기, 도서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보여 주고 있으며, 가상 전시, 이미지 갤러리로 이용할 수 있다. 대개 BC 박물관, BC 도서관, 아카이브가 제공한 것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역사 디지털 장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역사물 즉 UBC의 역사에 관한 문서와 전자화된 중요한 기록물로서, BC 박물관, BC 도서관, 아카이브가 제공한 것이다. 이 자료들에 대해서는 디지털화된 도서 및 서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들로는 Charles Darwin이 쓴 서신, 1874년과 1926년 사이에 쓴 BC의 저명한 감리교도 선교사의 아내가 쓴 서신의 모음, BC 캠퍼스와 커뮤니티에서 주최한 여러 강연 및 행사에 관한 방송 자료, 도쿠가와 시대의 일본지도, 학생들의 연감인 *The Annual and the Totem*(1916-1966)의 49책에 있는 약 1,750개의 이미지, 1차 세계 대전의 사진, 대학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UBC 대학이 주최한 거의 35,000종의 사진 이미지 등이 있다. 특히 부당한 차별과 억압으로 고통을 받은 중국인의 이민사를 그대로 보여 주는 이미지 사진이 인상 깊었다. 또한 이 아카이브에 흥미롭게도 '조선팔도지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수 및 학생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UBC 정보 저장소(cIRcle : UBC's Information Repository)에서 디지털 화하고 있다. 이 자료는 UBC 커뮤니티가 생산한 자료들로서, 출판된 자료나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모두 디지털 화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cIRcle의 저장 목록은 교수, 학생, 교직원, 연구자들의 논문, 프리프린트(preprint)¹⁸⁾, 포스트

18) 강연 • 논문의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해 쓰는 요지



‘조선팔도지도’

프린트(postprint)¹⁹⁾, 캠퍼스에 출판된 e-Journal, 과학기술 논문, 학회회보(Conference proceedings), 학위논문, 데이터세트(Data sets) 등이다. cIRcle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연구 결과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논문의 인용이 그렇지 않은 논문과 비교해서 36%에서 45%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UBC 도서관에서 디지털 자료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매체를 저장할 때의 저작권과 오픈 액세스(Open Access)²⁰⁾의 문제이다. 오픈 액세스는 연구자가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연구결과물을 직접 학교 정보저장 시스템에 올려 누구나 그 자료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형식의 연구 성과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배포해야 하는 가가 주된 문제로 떠올랐다.

UBC의 오픈 액세스 추진 방안은 최대한의 정보 생성과 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최고의 이용도 확보이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DSpace²¹⁾이다. DSpace시스템²²⁾은 기관 내의 연구물

19) 심사 후 논문, 저널의 심사과정을 통과한 논문의 디지털 원고

20) Open Access는 전통적인 학술 출판 유통의 대안적 전략으로 수록 콘텐츠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학술정보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08년 6월 하버드 대학, 법학 대학원 셀프 아카이브 의무화, 하버드 대학 문리학부, 만장일치로 연구 성과 OA 의무화

21) UBC DSpace - <http://dspace.library.UBC.ca/dspace>

(Right Information Sources for a Literature Review)

22) DSpace 시스템은 다양한 콘텐츠 유형을 지원하고, 기관 환경에 맞게 수정이 가능한 공개 소프트웨어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198개 대학 및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MIT 도서관과 HP(Hewlette-Packard)가 2000~2002년에 걸쳐 공동 개발한 오픈액세스 개방형 시스템으로 원래 목적은 'Open-Source'이었지만 초기 개발 때는 두 기관에 의해 통제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HP, MIT, University of Edinburgh, University of Cambridge, OCLC, University of Toronto,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등 DSpace시스템을 채택한 전 세계의 여러 기관들로 DSpace 연합공동체를 구성하여 기술적인 문제나 현안들을 공동체내의 개발자, 연구자, 이용자들의 주도하에 새로운 버전의 DSpace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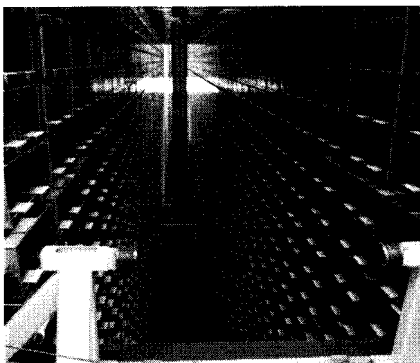
을 디지털 포맷으로 저장, 색인, 보관, 배포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리포지터리 시스템으로, 디지털 보존(Digital Preservation)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기관 리포지터리 패키지이다²³⁾.

이와 관련해서 UBC 도서관은 저널에 실린 UBC 교수들의 논문들을 무료로 오픈 액세스 할 수 있도록 e-Journal Pilot Project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UBC 학위논문을 2007년 가을 졸업생부터 cIRcle²⁴⁾에 full-text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 자동검색 시스템(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UBC 도서관은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로봇 자동 검색 시스템²⁵⁾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하고 있다. UBC가 자랑하는 시스템의 하나로, 필자가 이 시스템을 처음 보았을 때 공상과학 영화 한 장면을 보는 듯 했고 놀라웠다. 이 시스템은 자료의 보존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온도, 습도 조절을 갖추고 있으며, 약 1800만권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사서들의 손으로 책을 꽂고, 찾는 일을 기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명 로봇 자동 검색 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ASRS에 소장하고 있는 책들은 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을 통해서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자료를 Learning Centre의 대출대를 통해서 대출할 수 있다. 그 자료는 항상 10분 이내에 대출할 수 있다. 요청된 자료는 3일 동안 보관된다.

ASRS으로 반납된 책은 직원이 그 책의 바코드를 스캔 하면 바로 로봇이 해당 박스를 가져오고, 모니터는 그 책이 박스 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 주므로, 책을 찾기도, 다시 그 자리에 넣기도 쉽다. 책의 사이즈에 따라 박스를 채우며, 박스마다 가로 세로는 같지만 높이가 다양하다. 폐가식이고 바코드가 자료를 찾는 방법이므로, 청구기호 순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25년 동안 증가되는 장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ASRS 내부1

ASRS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도서관 서지학자에 의해 선별된 자료, 위원회가 지정한 자료, 오래 되어서 이용 빈도가 적은 자료, 1978년 이전의 슬라브어, 동유럽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아시아 언어, UBC 학위 논문,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각 분관도서관에서 소장한 자료 중 오래 되고,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ASRS로 보내어 이용토록 하고 있다.

UBC 도서관에서 가장 부러운 시스템 중의 하나이며, ASRS는 UBC가 연구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떤 자

23) DSpace Open Source (Right Information Sources for a Literature Review)software : <http://www.dspac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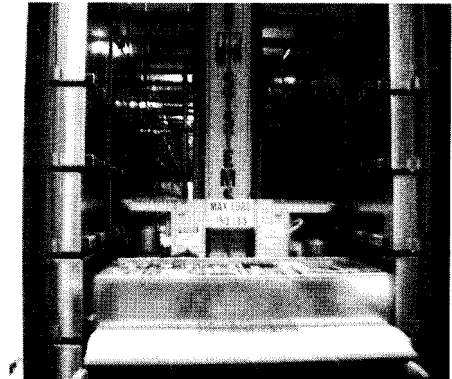
24) UBC's Information Repository

25) 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 ASRS

료도 폐기하지 않고, 보존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ASRS는 이용자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보존과 이용이라는 자료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보존을 위한 시스템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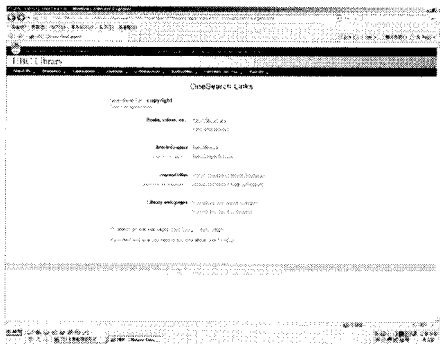
ASRS의 스캔



ASRS 내부2

6) 기타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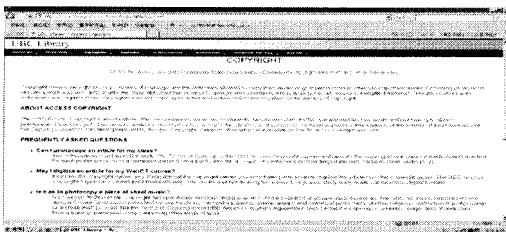
가) UBC eLink



주제명 표목을 보여 주어, 이용자들에게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게 했다.

UBC eLink는 OneSearch Links로 도서관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인덱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Google Book Search와 제휴하여 자료 검색 시 UBC 디지털 자료 뿐만 아니라 Google과 제휴한 다른 기관의 디지털 자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따로 Google Book Search에 접속하지 않고, 도서관 목록에서 바로 Google로 링크되어 서지사항, 서평, 목차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검색 결과 LC

나) 저작권에 대한 서비스



현재 초고속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저작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가 무한 공유되거나 사용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UBC에서는 저작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저작권의 올바른 인식과 보

호를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매우 유용한 사이트²⁶⁾를 링크해 놓았다. 또한 저작권법에 대한 용어를 비롯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해는 물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저작권법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볼 수 있도록, 저작권에 관한 유용한 사이트를 링크해 놓았다.

다) 표절방지 센터(Plagiarism Resource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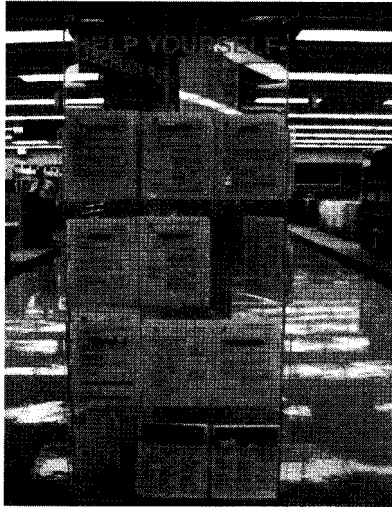
UBC도서관에서는 표절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Turnitin, CopyCatch, EVE2 Plagiarism Detection for teachers 등을 사용하고 있다. UBC도서관은 표절에 관한 정보를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표절에 대한 기준과 표절을 피하는 방법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표절이 무엇인지, 표절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차적인 2차 정보를 학기말 페이퍼에 어떻게 구체화 시켜야 하는지를 알려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표절의 개념을 비롯하여, 대개 4단어 이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하면 출처를 밝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인용하고 비판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도 언급하고 있다. 대학 교육을 통해 표절에 대한 기본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표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표절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원칙을 고수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라) 이용자를 위한 친절한 서비스

도서관 안내 프린트를 각 도서관 입구에 설치하여 도서관 안내뿐만 아니라 각 주제 DB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고 있다. 또한 도서관내에서 음식물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부분적인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서고 내의 개인만을 위한 안락의자라든가, 서고 내의 수돗물 설치, 서가의 메모 데스크 등은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Safe Walk'라고 하여 밤늦게 까지 공부하는 학생, 특히 여학생이 혼자 집에 가기 무섭다는 도움을 요청하면 캠퍼스 경찰이 안전한 곳까지 같이 걸어가 주는 시스템도 시행되고 있다. 이 모든 제도는 이용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친절한 서비스로 여겨진다.

26) UBC Access copyright Agreement, Canadian Heritage copyright,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 Board of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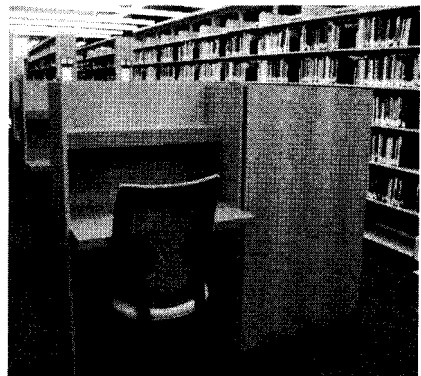
도서관 이용법 및 이용 안내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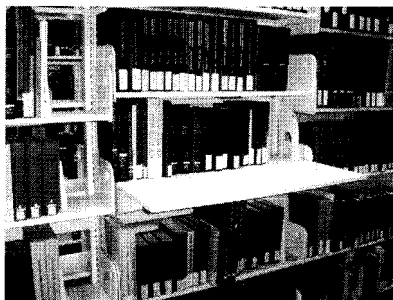
부분적인 음식물 반입 허용 안내문



서고 내에 설치된 수도



서고 내의 의자



서고내의 메모 데스크



Safe Walk

3. UBC 아시아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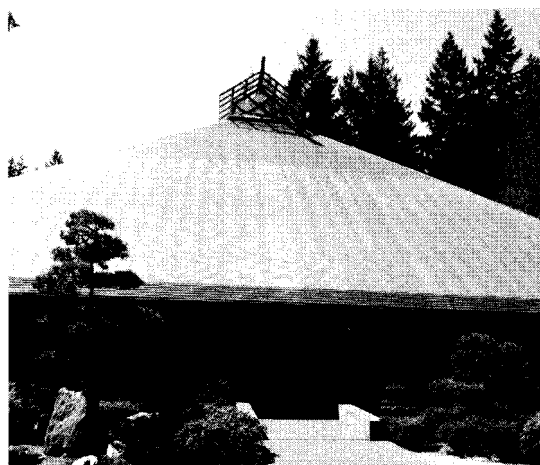
1) 아시아 도서관 개요

1960년 처음 문을 연 UBC 아시아 도서관(<http://www.library.ubc.ca/asian>)은 아시아 관련 장서가 약 55만권으로, 캐나다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한국, 중국, 일본, 남아시아 및 인도, 인도네시아, 티베트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주제 분야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언어, 문학, 철학 종교, 예술, 민속, 법학 즉 인문 사회 과학 분야에 해당되는 문헌이다. 반면 과학, 기술, 경제 관련 서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2) 아시아 도서관 장서현황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의 아시아 도서관 장서현황은 다음과 같다.

언어별	책 수
Chinese	296,000
Japanese	220,000
Korean	27,000
Indic, Indonesian	8,000
합 계	550,000



아시아 도서관 전경

이중 특징적인 장서로는 중국 희귀본인 Puban collection(蒲坂藏書樓), Swann collection, the Song Xuepeng collection(宋學鵬藏書), the Jing Yi Zhai collection(景頤齋藏書), 일본 정부 출판물, Pearl River Delta collection, 아시아-캐나다의 이주 역사에 관한 자료, 일본 희귀 지도, 산스크리트어, 팔리어²⁷⁾에 관한 희귀 자료 등이 있다.

아시아 언어로만 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관한 영어 자료는 Walter C. Koerner Library가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언어로 된 법학 관련 자료는 법학 도서

27) Pali, 고대 인도의 통속어, 불교 경전에 쓰인 말

관에 분산되어 있다. 아시아 도서관은 한, 중, 일, 인도, 인도네시아 자료들을 혼합 배열하였다.

아시아 도서관에서 현재 디지털 화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캐나다에서의 중국역사 자료, 웨이드/피진(Wade-Giles/Pinyin)변환 프로젝트, 중국인 불법 이민자에 대한 사진, UBC-Fuji 보존 프로젝트이다. 중국자료와 일본자료를 디지털 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자료는 디지털 화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3) 아시아 도서관 한국학 자료의 구입 및 정리

가) 한국학 자료의 현황

한국학 장서는 약 2만 7천 권으로 캐나다에서는 토론토대학 다음으로 많은 한국학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1982년 UBC 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 코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서관에서 한국어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1992년부터 UBC에 정식으로 한국어 자료 구입 예산이 책정되면서 본격적인 한국 관련 서적 구입이 이루어졌다. 한국어 장서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단행본 27,000권, 연속간행물 약 130종, 신문 4종, 한국어 데이터베이스 4종(KISS, KLRI, DBpia, KRpia)으로, 캐나다 서부 지역 학술 도서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한국학 장서를 소장하게 되었다.

나) 한국학 자료 구입

한국학 도서를 갖고 있는 북미 대학의 학술도서관들은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고 있다. UBC의 아시아 도서관은 2007년에 Korean Collection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의 멤버가 됨으로써,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북미지역 12번째 재정 보조 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연간 3만 달러의 한국어 자료 구입비를 지원받게 됐다. 국제교류재단의 재정 보조를 받게 된 것은 캐나다 내에서는 토론토 대학 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07년부터 반일제(half time) 사서를 전일제 근무 사서로 바꾸었다.

주제 분야는 인문 사회 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어로만 된 자료를 구독하고 있으며, 그 중 문학, 역사, 경기도 지역 민속, 법학, 문화, 예술, 종교(불교와 기독교 제외), 북한 연구 분야의 자료, 캐나다 서부 지역의 한국학 관련 출판물 분야의 문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번역서는 구독하지 않고 있다. 한국학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로는 주제 사서 1명과 목록 담당 사서 1명이다.

다) 한국학 자료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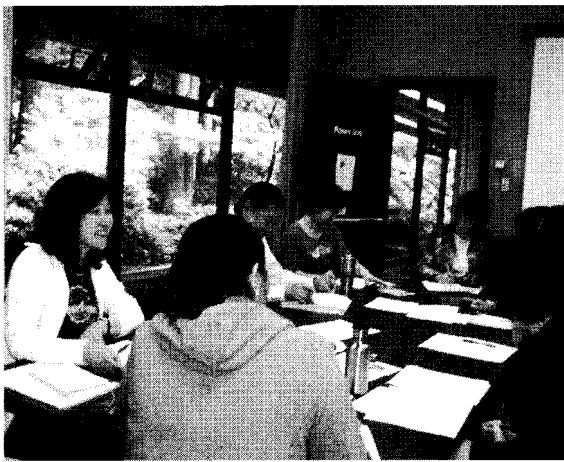
주로 사용하는 목록 시스템으로는 OCLC와 UBC 자체 시스템인 Voyage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WorldCat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외에는 OCLC 데이터를 이용하여 Copy

Cataloging과 Original Cataloging을 한다. UBC의 모든 자료는 미국 국회 분류법²⁸⁾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한국학 자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정리하고 있다.

북미대학도서관에서의 한국 자료 목록은 한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정과는 다른 MaCune-Reischauer System²⁹⁾을 기본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이광수 → Yi, Kwang-Su, 한국말 → Han'gungmal, 재미있다 → Chaemiitta

라) 한국학 자료의 전망



아시아 도서관 Staff Meeting

지난 20여 년간 놀라운 속도로 한국학 관련 연구와 학자들의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 장서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북미에서 약 50여개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장서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중 3만권 이상 소장 도서관이 10개이며, 1만권에서 3만권의 소장 도서관이 7개인 상태이다.

UBC 한국학 관련 교수진은 일본학과 중국학에 비교해 약 1/2의 숫자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학 장서가 늦게 갖춰지기 시작했다. 예산 부족으로 그 중 한국어 자료는 2만 7천 권으로 전체의 5퍼센트가 채 안 된다. 앞으로 한국 장서의 수가 늘어나고, 장서의 주제가 다양해져야 한다. 그리고 최근

발간된 자료가 신속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국내 한국학 관련 기관들의 출판물 기증 및 한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III. 워싱턴 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도서관

1.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

워싱턴 대학교는 1861년에 워싱턴 지방대학으로 설립되었다. 개교 당시에는 단 1명의 교수가 라틴어, 그리스어, 영어, 역사, 수학, 생리학 등 모든 과목을 강의했다. 현재 워싱턴대학의

28)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

29) MaCune-Reischauer System

학부생은 2만 4천여 명, 대학원생은 9,627명, 교수는 2,994명이다.

워싱턴 대학교의 도서관(<http://www.lib.washington.edu>)은 중앙도서관 격인 Suzzalo 도서관을 포함한 20개의 도서관에 600만 권의 도서, 635만 점의 마이크로폼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5만 7천 종의 연속간행물이 비치되어 있다. 도서관 직원은 약 400여명으로, 이중 주제 사서는 165명이다.

워싱턴 대학도서관의 특징으로 눈에 띄는 것은 각 도서관 별로 문고 형태의 장서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고별 장서는 워싱턴대학 교수들이나 개인들이 자기 전공분야나 취미분야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던 것을 도서관에 기증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방대한 장서수를 자랑하는 북미 대학 도서관이지만 오래되어 보존 가치가 없는 도서는 과감히 처분한다. 워싱턴대학 도서관은 연말이나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런 도서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일'을 한다. 대학도서관이 'Books for sale' 또는 'Give-Away Items' 사인과 함께 도서관 입구에 쌓아 놓으면, 필요한 학생들이 공짜로 가져가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도 한다. 책값이 아주 비싼 외국에서 이 같은 '세일기간'을 잘 이용하면 저렴하게 책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서울대학 도서관도 기증도서가 입수되면, 복본인 경우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시 기부하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세일 코너'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한편 워싱턴 대학 도서관은 'Any time Any place'의 슬로건을 걸고,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2. 동아시아 도서관(East Asia Library)의 개요 및 장서 현황

동아시아 도서관은 1937년에 록펠러 기금으로 개관했다. 동아시아 도서관의 장서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티베트에 관한 자료로서, 주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동아시아 도서관은 약 56만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서는 258,399권, 일본서는 136,983권, 한국서는 87,679권, 서구자료는 27,905권, 티베트서는 9,109권이며 그 이외 자료가 약 천 여권 정도이다.

3. 동아시아 도서관 한국학 자료의 장서 현황

한국학 자료는 교수와 학생이 신청하거나 사서가 선정하여 구입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락 만화일지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구입한다고 한다. 수서는 Approval Order로 하고 있으며, 한국학 자료의 선정은 한국사 연구 회보, Vendor 목록, 신간 목록, Review(영문 자료), OCLC, KERIS를 참조하여 수집하고 있다.

1994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여성학, 근대사, 마이크로필름, 신문자료, 경상남북도 지역, 영남지방의 향토자료를 주로 확보하게 되었다. 장서 구

성은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국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한국학 도서관의 자료 이용자는 주로 한국학 교수진 또는 한국계 이민자이다. 사서의 구성원은 한국학 담당 사서 1명, 목록 담당 사서 1명, 파트타임 학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UBC 아시아 도서관에 비해 기금이 많았는데, 그 중 특이한 점은 학과에서 도서 비를 지원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대학 동아시아 도서관은 한국 자료 서지 및 콘텐츠 색인을 디지털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의 결과물은 <일제하 공판기록 자료집>³⁰⁾과 <한국역대문집총서>³¹⁾의 색인이다. 그리고 현재 해방 전후의 회귀 잡지에 대한 콘텐츠 색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정치 상황, 사상의 변화 및 시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UBC 아시아 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한국학 자료 소장의 양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는 시기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한국학 자료에 대한 비중이 보다 크고, 보다 많은 한국학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 있다. 또 다른 점은 학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도 있어서도 훨씬 여유가 있다. 현재 한국학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개발(Career Development) 프로젝트, Plans/Idea이다. 중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이용자 교육, 디지털화, 장서구입비, 전자자료, 목록, 수서 업무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의 사서들과 고민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사이먼 프레이즈 대학(University of Simon Fraser) 도서관

밴쿠버에 있는 UBC Library 외에도 사립대학이며 IT 분야에 있어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고 있는 사이먼 프레이즈 대학(SFU)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버나비에 위치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http://www.lib.sfu.ca>)는 1963년 BC 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응용과학대학, 예술대학, 경영대학, 교육대학, 과학대학원 등 5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는 596명이며, 학생 수는 18,700명이다.

SFU 도서관에는 약 133만권의 도서와 96만 점의 마이크로폼 자료 및 CD를 포함한 8,000 점의 시청각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8,655점의 정기간행물이 비치되어 있다. 공동 수서와 정리 등 중앙관과 분관의 연계운영 체제와 장애인 서비스 시설이 돋보였다. 자료실에는 PC와 Lan 환경이 잘 이루어져 자유롭게 인터넷을 검색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IT 대학의 면모를 보여 주듯이 수백 대의 컴퓨터와 iMac이 로비에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다른 대학별 도서관과

30) <http://db.lib.washington.edu/> 공판기록 자료 385권을 한국인 피고의 이름으로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일본식 판결 및 소송절차를 볼 수 있는 근대사의 자료로 활용

31) <http://db.lib.washington.edu/klcni>

의 상호대차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이에 따른 도서 대출 예약제도나 반납 리콜제도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있었다. 풍부한 지도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으며, 이용자가 열람할 때 편리하게 되어 있었다.



SFU Map's room



SFU Library 사서와 함께

V. 캐나다의 도서관 활동

1. 캐나다 도서관 개요

캐나다에는 연방정부차원의 도서관 기본법이 없다. 도서관 활동에 대한 법제는 주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며, 모든 주마다 자체의 도서관법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법과 기록관리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도서관법·기록관리법³²⁾으로 통합 운영하는 나라는 캐나다가 유일하다. 지방 정부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요구되는 도서관위원회, 직원채용, 재정운용, 서비스평가, 납본 및 보존, 이용규정 등의 전반적인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공공도서관법 세부 조항으로 운영된다.³³⁾

캐나다에서는 모두 22,000여개의 도서관이 캐나다도서관기록관(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LAC)을 중심으로 활발한 상호대차와 공동협력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은 모두 3,600여개 이고, 학교 도서관수는 약 1,500여개이다. 캐나다 도서관 기록관의 게이트웨이 서비스에는 전문도서관이 212개관, 정부도서관이 309개관, 대학도서관이 609개관이 웹 혹은 텔넷형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32)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33) 도서관연구소 웹진 vol. 14, 2008. 4. 30.

2. 캐나다 공공도서관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아주 친근하다. 각 지역이나 도시에 있는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은 주민들의 삶의 일부나 마찬가지로이다. 공공도서관에 갖추어진 명랑한 분위기의 "Living Room"은 이용자들이 잠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넷을 즐기며, 편안한 환경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공간이다. 다목적 기능 공간으로 기능하며, 유려한 디자인, 이용자에게 맞도록 갖춰진 가구들로 마음을 끄는 곳이며, 정보와 책, 현대적인 매체 모두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좋은' 도서관이었다.

캐나다에서는 전 국민의 2/3가 도서관회원증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소방 및 응급서비스 다음으로 높은 정도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신뢰와 참여는 대단하였다.

캐나다 도서관 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가 도서관정보서비스 중추기관으로서 캐나다 도서관기록관³⁴⁾과 캐나다과학기술정보원(CISTI)³⁵⁾의 주된 기능과 역할이 주제와 매체에서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다.

CISTI는 캐나다국립과학도서관에서 발전하여 오늘날 1백만 건의 원문 서비스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와 회의록 등에서 첨단적인 디지털 원문서비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캐나다 도서관 기록관은 캐나다 기록문화 보존이라는 취지에서 역사적 고문서적 가치가 있는 문헌 및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 이용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두 기관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문헌자료와 전자자료, 보존과 이용이라는 상대적 가치비중에서 각각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정보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 기능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VI. 기타 연수 활동

1. 2008년 북미 주 동아시아 도서관협의회 회의 참석

2008년 CEAL에서의 주요 안건은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논의로, 레코드의 활용에 있어서 Space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2006년 7월 RLG³⁶⁾와 OCLC³⁷⁾가 합병

34) LAC(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35) Canada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36) RLG : RLG(Research Library Group)는 미국의 대기업 서지 유틸리티이다. 1974년에 설립된 RLG는, 150개 이상의 도서관, 문서관, 박물관 등으로 구성되는 비영리 단체로, 약 400의 언어, 폭

하면서 두 기관의 대표적 데이터베이스도 통합되었다. 그 결과 RLG의 공동목록인 RLIN이 OCLC의 Connexion에 흡수되었다. 이에 OCLC와 RLIN이 통합되어 한국 자료의 입력기준이 바뀌어야만 하므로 CEAL에서 기존 OCLC와 같이 Space를 두지 않는 방법, RLIN과 같이 모든 조사와 명사는 Space를 두는 방법,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2008년 회의 결과 타이틀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력(main responsibility)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자저널 컨소시엄 가격 조정에 대한 협의와 효율적인 수서 방법에 대한 열띤 논의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북미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고, 북미대학 도서관의 한국학 자료를 담당하는 사서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은 가능한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서 한국학 장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2. UBC Library & Scholarly Communication Workshop Series

2008년 4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UBC I. K. Barber Learning Center에서 열린 사서와 교수의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 워크숍의 주요 안건은 리포지토리³⁸⁾와 저작권에 대한 논의였다. 구체적으로 고비용 학술지로 인한 대학 도서관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서의 개방접근³⁹⁾

넓은 분야를 커버한 종합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주로 뉴욕 공공 도서관, 예일대학 도서관, 하버드 대학 도서관,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등 연구 도서관의 연합체이며, 이 그룹은 자료이용의 증대를 위하여 약 2,650만권에 달하는 회원 도서관 자료에 대한 서지 정보 센터를 예일대학에 설치하여 정기 간행물과 정부간행물의 목록을 컴퓨터로 처리한다.

37)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atalog)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과 교육기관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 교육기관과 그 사용자 회원에 의해 조직된다. OCLC는 세계 10,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와 접속되어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전 세계적이며 라이브러리는 카탈로그와 내부 라이브러리의 대출, 성과물의 수집, 저작자 명단의 조합, 그리고 레퍼런스의 검색에 OCLC 시스템을 사용한다.

38) UBC에서는 리포지토리를 도입하여 소속 연구자들이 생산한 다양한 형태의 간행, 미 간행 연구 성과물 및 대학의 학술 행사 기록을 수집, 색인, 유통, 보존하는 등 기관 내 지식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리포지토리를 통한 저자의 셀프아카이빙이 오픈 액세스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지만 리포지토리를 도입할 경우 저작권을 누가 소유하는지, 저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셀프아카이빙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므로 저작권 및 라이선스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39) 오픈 액세스는 산출(output)단계의 전통적인 구독료 기반 모델이 아닌 투입(input)단계의 저자 지불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도서관과 개별 구독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픈 액세스 운동은 1998년 미국에서 연구 성과물의 배포를 저해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잘못된 기능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 연구도서관 및 단체가 연합하여 설립한 SPARC(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가 오픈 액세스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 전략을 제안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첫째, 무료로 공개되는 온라인

(Open Access)에 대한 문제와 도서관에서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밝히고, 사서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제도적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워크숍은 도서관 사서들이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저작권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워크숍이었다.

3. UBC ‘아시아 도서관 오픈 하우스’ 행사 참석



이 행사는 2008년 5월 26일 UBC 아시아 센터 (Asian Centre)에서 ‘아시아 문화의 달(Asian Heritage Month)’행사의 일환으로, 올해 7번째 맞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 됐다. 아시아 관련 서적 바자회, 붓글씨 강좌, 일본식 정원 식물 소개 강좌, 아시아 각국 문화 소개 영상 상영 등이 있었다. 한국 관련 행사로는 사물놀이와 김치에 관한 영상, 상영을 비롯해 한국어 장서 이용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 UBC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시아를 알리기도 하고, 친근한 도서관으로서의 인식을 심어 주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었다.

VII. 나오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 도서관, 워싱턴대학 도서관, 사이먼 프레이저 도서관의 운영방법과 발전 배경, 수서 및 정리,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방법 및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UBC 도서관 및 워싱턴대학교 도서관,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도서관들은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대개 주제별 또는 학과별 도서관으로 출발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서들은 자기가 맡은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이용자들에게 단순히 자료를 안내하는 정도가 아닌 주제 분야의 서지 작성은 물론, 자료선정, 이용 방법 지도, 논문작성 교육, 문헌비평에 관한 안내 (Right Information Sources for a Literature Review)의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

오픈 액세스 학술지(예. PubMed Central)를 연구 성과의 발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논문 저자가 본인 홈페이지 또는 소속 기관의 리포지토리 등에 저작물을 직접 올리고(self archiving) 온라인상에 무료로 공개하도록 한다.

국의 사서 과정이 주로 학부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완전한 주제 전문 사서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서들의 재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주제 사서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UBC 도서관에서는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합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작권 지식을 갖추기 위해 교수와 사서와의 워크숍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컸다. 또한 현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픈 액세스에 대한 열띤 논의와 표절 문제에 대한 교육이 강의실이 아닌 도서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도서관이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UBC Library Development Office에서 LibQUAL⁺ 과 User Survey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평가를 하고 있는 점과 교수와 학생들의 'Wish List'가 아닌 사서들의 'Wish List'를 만들어 대학구성원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점 역시 우리 도서관에서 시도해 볼만 하다고 여겨졌다.

한편 UBC 도서관에서 연수하면서 선진국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예를 들면 자료 검색을 위한 인터넷 속도도 우리가 훨씬 빨랐고, 우리의 DLiII 통합시스템 역시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무실 집기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프린터기도 우리와 달리 UBC에서는 사서 3~4인이 공동으로 쓰고 있었다. 또한 연수 중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Mobile Pass에 대한 얘기를 해 주었을 때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하면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부러움을 산적도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수 기간 동안 방문한 캐나다 대학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들이 유려한 디자인과 편안함으로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면서, 이용자를 위한 독립 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도서관들은 이용자를 위한 정보와 책, 현대적인 매체 모두를 검색할 수 있는 '기분 좋은' 도서관이었다. 이런 점에서 고시준비나 취직시험 준비를 위해 독서실과 같은 우리 도서관의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연수기간 동안 여러 도서관을 접하면서 다음 두 가지의 느낌을 갖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 도서관들은 친절할 도서관, 기분 좋은 도서관이었다. 내가 방문한 도서관의 사서들은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며,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을 도와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도서관의 안내 역시 기본적인 이용이나 자료 검색을 넘어 각 주제별 서지안내를 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그 도서관들은 규모가 작던, 크던 도서관에 들어서면 쾌적하고, 차분해지고, 계속 있고 싶어지는 기분 좋고 편안한 도서관이었다. 우리 도서관이 외국 선진 도서관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에게 사랑받는 '기분 좋고 편안한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아름다운 밴쿠버에서 생활하면서 얻기 힘든 소중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교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